

두경부에 발생한 변연부 B세포 림프종의 임상 양상과 치료 결과에 대한 고찰

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

나윤찬* · 권택균 · 성명훈 · 김광현 · 하정훈

목 적 : 점막연관 림프조직(mucosa-associated lymphoid tissue, MALT)에서 발생하는 변연부 B세포 림프종(marginal zone B cell lymphoma)은 저등급 B세포 림프종(low grade lymphoma of B cell type)의 일종이다. 주로 위장관에 발생하고 두경부에서는 드물게 발생하는데 아직 그 임상 양상 및 경과가 다양하여 진단 및 치료법이 아직 정립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. 이에 저자들은 지난 10년 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변연부 B세포 림프종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의 임상적 특징 및 치료 경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진단 및 치료 방침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

방 법 :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병리 검사를 통해 변연부 B세포 림프종으로 진단 받고 치료 받은 4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들의 의무기록에 대한 후향적 검토를 통해 시행하였다.

결 과 : 총 48명의 환자 중 남자는 21명, 여자는 27명이었으며, 평균 연령은 48.6 ± 15.8 세(23~88세)였다. 환자들의 이환 기간은 평균적으로 15.4개월이었다. 환자의 대부분은 안구 혹은 안구부속기 종괴(22명, 45.8%) 또는 경부 종괴(13명, 27.1%)를 주소로 내원하였다. 침범 부위에 따라 분류하면 35명의 환자에서 안구 및 안구부속기를 4명의 환자에서 갑상선을, 2명의 환자에서 침샘을, 4명의 환자에서 후

두를, 2명의 환자에서 구강점막을, 1명의 환자에서 편도를 침범하였다. Ann Arbor 병기 분류 결과 23명의 환자에서 제1병기(47.9%), 21명의 환자에서 제2병기(43.8%), 4명의 환자에서 제3병기(8.3%)로 분류되었다. 치료로는 12명의 환자에서 국소 치료법(수술적 제거 : 5명, 방사선 치료 : 7명, 2명의 환자에서는 항암화학요법 동반), 35명의 환자에서 항암화학요법이 시행되었으며 1명의 환자는 치료 없이 경과 관찰하였다. 초기 치료 후 23명(47.9%)의 환자에서 질병이 완전 관해 되었으며, 10명(20.8%)의 환자에서는 부분 관해를 얻을 수 있었고 13명(27.1%)의 환자에서는 불변, 2명(4.2%)의 환자에서는 치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진행하였다. 7명(14.6%)의 환자에서 질병이 재발하였으며 초치료 후 재발까지는 평균 20개월이 소요되었다. 평균적으로 38.6개월간 추적 관찰한 결과 환자들의 5년 생존율은 90.3%였으며 5년 무병생존율은 65.6%였다.

결 론 : 두경부에 발생하는 변연부 B세포 림프종의 치료는 주로 항암화학요법이 사용되며 수술과 방사선 치료와 같은 국소적 치료법의 적용이 가능하다. 질병은 서서히 진행하고, 치료에 잘 반응하는데, 재발 여부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.